

조선시대 무관의 길짐승흉배제도와 실제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Joseon's Badge System for Military Ranks and Practices

Eun-Joo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08. 6. 2 토고)

ABSTRACT

This study shows the badge system for military officials of *Joseon* dynasty. The badge system for military officials of the 15th century consists of rank badges with tiger and leopard for the first and second ranks and rank badges with bear for the third rank. According to the code of laws, military officials are supposed to wear the rank badges with four different kinds of animals in *Joseon* dynasty. However, the badge system shown in the code of laws sometimes does not match with the badges in practices.

Based on the literature, remaining badges and the badges in portraits, six different kinds of badges with animals are found : First, rank badges with tiger and leopard were used until the late 16th century. Second, rank badges with tiger were found in the period between the early 17th century and the latter 18th century. Third, rank badges with *Haechi* were found in the early 17th century. Fourth, rank badges with lions can be found in remains of the mid 17th century, the literature and the portrait of the late 18th century. Finally, the rank badges with double leopards or with single leopard were found from a portrait dated the late of 18th century to the last period of *Joseon* dynasty.

Key words: *Joseon* Dynasty(조선시대), military(무관), rank badge with animal(길짐승흉배), rank badge system for military officials(무관흉배제도), rank badge with *Haechi*(해치흉배), rank badge with lion(사자흉배), rank badge with double leopard(쌍호흉배), rank badge with single leopard(단호흉배)

I. 머리말

조선시대의 무관(武官) 홍배(胸背)는 무관의 예복인 흑단령(黑團領)에 부착하여 품계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장식물이다. 문관의 홍배는 새[鳥] 문장(文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날짐승홍배[飛禽胸背]라고 하였던 반면에 무관은 땅을 딛고 다니는 용맹한 동물로 문장을 삼았기에 길짐승홍배[走獸胸背]¹⁾라고 지칭하였다.

근래에 발표된 홍배 연구 중에도 무관의 홍배를 다룬 경우²⁾가 있기는 하지만 연구 당시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간략히 다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현재도 자료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간 새롭게 발굴된 유물자료와 문헌자료들이 있기에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함께 새로이 발굴된 홍배 유물이나 초상화 같은 실증적 자료를 활용하여 조선시대 무관 홍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 무관홍배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명(明)·청(清) 시대의 무관 홍배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홍배제도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고 조선 홍배제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둘째,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편찬한 관찬(官撰) 자료에 나타나는 무관 홍배제도를 살펴보고 셋째, 관찬 이외의 기록물과 실증적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에 실제 사용되었던 홍배의 종류를 밝히고 제도와 실제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 후기의 사자홍배의 존재를 제시하면서 사자 형태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고찰을 통해 조선시대 무관 홍배제도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관 홍배의 명칭은 문관 홍배와 마찬가지로 주문(主紋)으로 사용된 동물의 명칭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추후 홍배 유물의 명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홍배 유물의 진위 감정(鑑定)이나 시대 판정에 있어서 홍배의 바탕 옷감과 홍배의 크기, 부문(副紋)의 종류와 조형적 특징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면 부족으로 다루지 못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II. 명·청시대의 길짐승홍배제도

1. 명나라 길짐승홍배제도

『대명회전(大明會典)³⁾』에 의하면 명나라의 홍배제도는 조선 건국 이듬해인 흥무 26년(1393)에 제정되었다. 그 중 무관의 홍배는 1·2품의 사자홍배와 3·4품의 호표(虎豹) 홍배, 5품의 웅비(熊羆) 홍배, 6·7품의 표(彪) 홍배, 그리고 8·9품의 서우(犀牛), 해마(海馬) 홍배 등, 총 6종의 길짐승홍배로 제정되었다.

한편 『대명회전』보다 늦게 편찬된 『삼재도회(三才圖會)』에는 『대명회전』 제도에서 약간 변화된 제도가 제시되어 있다. 3·4품 공용의 호표홍배가 3품의 호홍배[虎補]와 4품의 표홍배[豹補]로 분리되었으며 5품의 홍배는 웅비홍배에서 웅홍배[熊補]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8품과 9품의 홍배는 해마홍배와 서우홍배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⁴⁾ 이러한 제도변화는 『명사(明史)⁵⁾』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의 17세기 초 초상화에서 『삼재도회』의 변경된 제도와 일치하는 호홍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명나라의 제도가 일부 변경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한편 해치홍배는 본래 풍헌관(風憲官)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명나라 말기에는 무관들이 해치홍배를 사용하였다⁶⁾고 한다. 17세기 초 조선의 무관들이 해치홍배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명나라 무관이 해치홍배를 사용하였던 것 역시 사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명대의 무관 홍배제도는 초기의 6종이 후기에 7종으로 증가하였으며 17세기 전후에는 해치홍배까지 사용되어 실제로는 모두 8종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청나라 길짐승홍배제도

1690년의 『대청회전(大清會典)⁷⁾』에는 『삼재도회』의 제도에서 다시 변화된 제도가 확인된다. 우선 3품

<표 1> 명·청대 무관의 흉배제도

明代	大明會典 (1587)	三才圖會 (1607)	清代	大清會典 (1690)	清會典圖	燕行紀 (1790)	무오연행록 (1798)
一品	獅子	獅子	一品	獅子	麒麟	麒麟	麒麟
二品			二品		繡獅	獅子	獅子
三品	虎豹	虎	三品	豹	繡豹	豹	豹
四品		豹	四品	虎	繡虎	虎	虎
五品	熊羆	熊	五品	熊	繡熊	熊	熊
六品	彪	彪	六品	彪	繡彪	彪	彪
七品			七品		繡犀	犀牛	犀牛
八品	犀牛	海馬	八品	犀牛			
九品	海馬	犀牛	九品	海馬	繡海馬	海馬	海馬
獬豸	風憲官	文官風憲 衙門	獬豸	都察院·按察司官	都御史	御史·按察使 ·科都官	都察院·按察使 ·科都官

과 4품의 흉배 문장이 호(虎)·표(豹)의 순서에서 표(豹)·호(虎)의 순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8품과 9품의 해마(海馬)와 서우(犀牛) 문장은 명나라 초기 제도처럼 다시 서우와 해마의 순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다.

이후의 『청회전도(清會典圖)』에는 『대청회전』과 또 다른 제도가 보인다. 이는 조선의 18세기 연행록 중의 하나인 저자 불명의 『연행기(燕行紀, 1790)』나 서유문(徐有聞)의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 1798)』에 보이는 청나라 흉배제도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다시 청나라의 흉배제도가 변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1·2품이 함께 사용하던 사자흉배를 1품과 2품으로 나누어 1품은 기린흉배를, 2품은 사자흉배를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6·7품이 사용하던 표(彪) 흉배를 6 품 흉배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줄이고 그보다 낮은 품계인 7·8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우(犀牛) 흉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청대의 무관 흉배는 품계가 높을수록 세분화되었으며 낮은 품계의 흉배는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문(文)보다 무(武)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해된다.

한편 해치흉배는 명나라 제도와 마찬가지로 도찰원(都察院)과 안찰사(按察使), 과도관(科都官)⁸⁾, 도어사(都御史)⁹⁾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상

에서 살펴본 명나라와 청나라의 무관 흉배제도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III. 조선시대 무관의 길짐승흉배제도와 실제

조선시대의 관찬(官撰) 자료에 나타나는 기록상의 무관 흉배제도와 흉배유물이나 초상화와 같은 실증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실제적인 제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흉배제도가 문란하였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와는 다른 관행적 제도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우선 관찬 자료에 나타난 무관의 흉배제도를 알아보고 실제 사용된 길짐승흉배의 종류를 밝혀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 흉배 종류별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관찬(官撰) 자료를 통해 본 무관의 흉배제도

조선에서는 세종 때 비로소 흉배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¹⁰⁾ 단종 2년(1454) 12월 1일에 종친 등 72인에게 단자(段子)를 내리면서 처음으로 흉배단령을 착용하게 되었다.¹¹⁾ 열흘 후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문관의 흉배제도와 더불어 무관의 흉배제도를 반포하였는데 도통사(都統使)의 사자흉배와 1·2품용 호표흉배(虎豹胸背), 그리고 3



〈그림 1〉 호표홍배 도상(『大明會典』)



〈그림 2〉 웅비홍배 도상(『大明會典』)

품 당상관용 융표홍배(熊豹胸背)와 같은 세 종류의 길짐승홍배가 무관홍배로 규정되었다. 관리의 단령 상복(常服)에 수(繡)를 놓거나 직금(織金)한 잡색의 저사(紵絲), 능·라·사(綾·羅·紗)를 각 품급에 따라 붙이도록 하였다.¹²⁾ 이는 명나라의 홍배제도에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30년 후의 『경국대전』에는 사자홍배에 대한 언급 없이, 무관 1·2품의 호표홍배와 3품의 웅비 홍배(熊羆胸背)만 명시되었다.¹³⁾ 호표홍배와 웅비홍배의 도상은 『대명회전』에 〈그림 1〉, 〈그림 2〉으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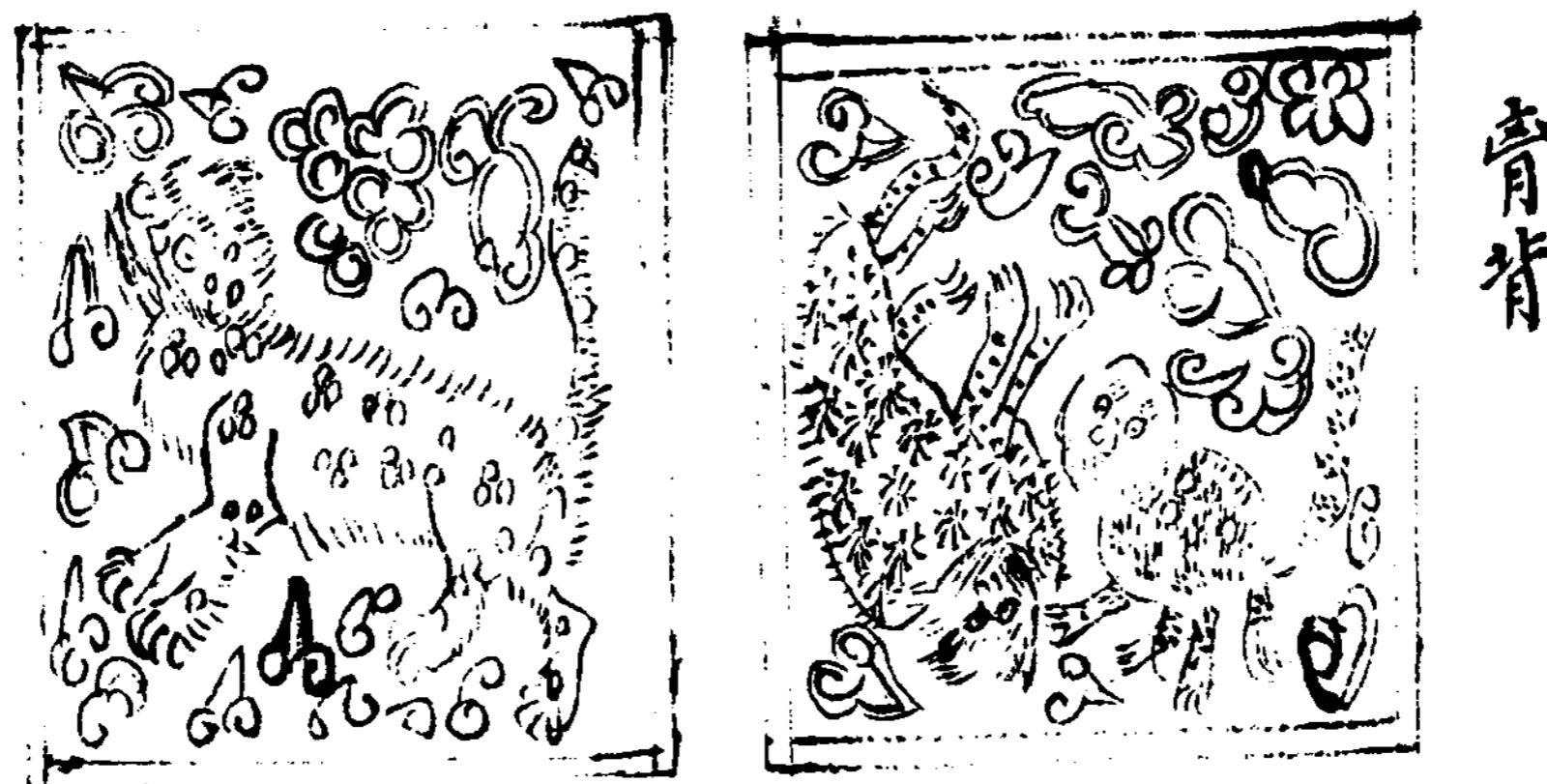
문관의 날짐승홍배는 1품용 공작홍배, 2품용 운안 홍배, 3품용 백한홍배로 제정함으로써 한 품계를 하나의 문장으로 규정한 것에 반하여 무관의 길짐승홍배는 세 품계를 호표와 웅비의 두 등급으로만 구분하였다. 문관의 것에 비해 덜 세분화된 것이다. 그리고 홍배제도의 초기 단계에는 모든 색상의 단령에 홍배를 달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세조대 이후 관리들의 예복인 흑단령에만 홍배를 사용하는 관행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⁴⁾

한편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는 연산군(燕山君) 11년(1504)에 돼지[豬], 사슴[鹿], 거위[鵝], 기리기[鴈] 홍배를 9품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기록¹⁵⁾이 보인다. 그 중 길짐승에 해당되는 돼지·사슴이 무관용 홍배로 제정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산군대의 홍배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이 이상 확인된 바 없으며 10개월 후인 1506년 9월에 중종반정이 일어났으므로 그 사이에 새로운 홍배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⁶⁾ 단, 9품까지 홍배를 사용하도록 했던 연산군대의 제도가 3품 이하의 인물들까지 홍배를 사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¹⁷⁾은 배제할 수 없다.

그 이후 17세기 말까지는 무관의 홍배제도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숙종 17년(1691)에 이르러 비로소 영의정 권대운(權大運)이 문관은 날짐승[飛禽] 무늬를 쓰고 무관은 길짐승[走獸] 무늬를 쓰는 제도가 있는데 요즈음 법도가 없으니 신칙(申飭)해야 한다¹⁸⁾고 한 기사가 보인다. 영조 10년(1734)에도 무관이 문관의 학홍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을 내렸다.¹⁹⁾ 무관이 학홍배를 사용한 사례는 이와 같은 기록 외에 초상화에서도 확인된다. 18세기 초 이만유(李萬維, 1648-1730)의 초상화²⁰⁾나 19세기 초 신의직(申義直, 1789-1825)²¹⁾ 초상화 등, 무관의 초상화에서 간혹 쌍학홍배를 볼 수 있다. 당시 무관의 홍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초기 당상관 이상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던 홍배 사용자의 범위는 숙종대 이후 점차 확대되었다. 우선 숙종 18년(1692)에는 6품 이상 홍배를 갖추도록 하였으며²²⁾ 영조 21년(1745)에는 무관이 호표(虎



〈그림 3〉『大韓禮典』에 실린 무관용 흉배

豹)와 웅비(熊羆) 흉배를 사용하는 것이 옛 뜻을 잊지 않는 것²³⁾이라하면서 이듬해 완성된 『속대전(1746)』에 ‘당상3품 이상의 무신 흉배는 『대전(大典)』과 같고(1·2품) 당하3품 이하의 무신 흉배는 대전 무신 당상(3품)과 같다’²⁴⁾고 명시하였으니 50년 만에 다시 흉배 사용자 범위를 9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문관의 흉배를 운학흉배와 백한흉배로 이분화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관의 흉배 역시 9품까지 호표흉배와 웅비흉배를 사용하는 이분화 원칙을 유지하였다. 그 후 판찬된 정조 9년(1785)의 『대전통편(大典通編)』²⁵⁾은 물론, 고종 2년(1865)의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영조대의 『속대전』과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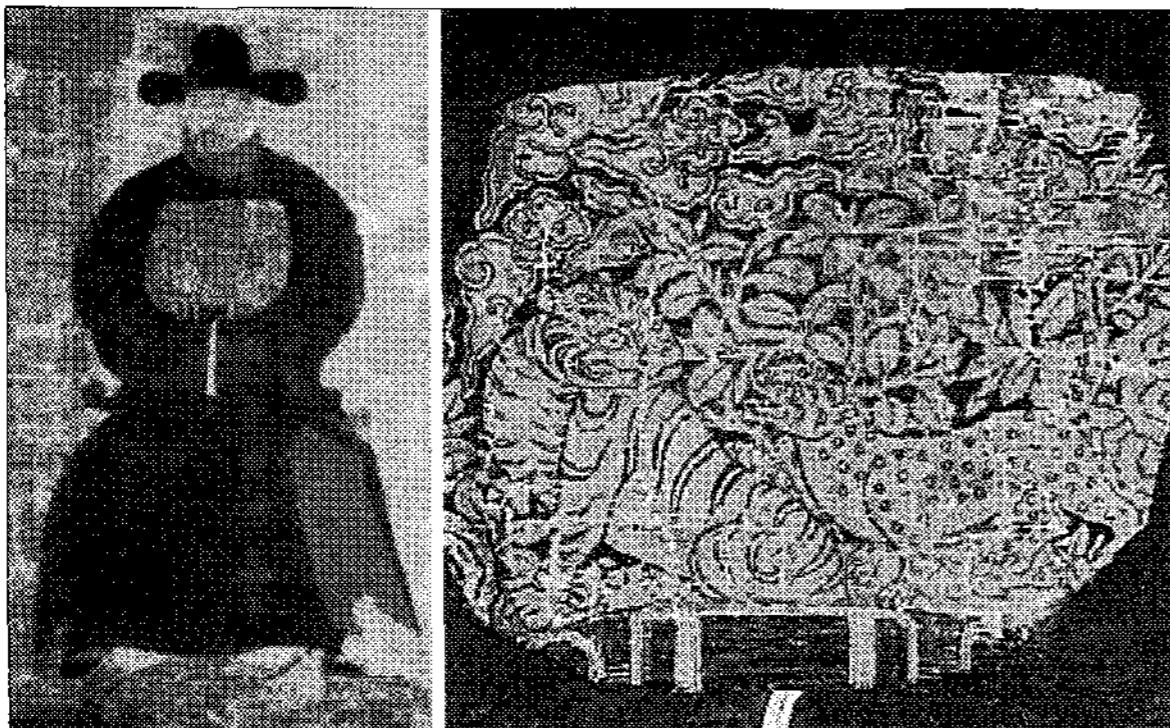
고종 8년(1871) 기록에서 비로소 무관 당상관은 쌍호, 당하관은 단호흉배를 사용한다는 규정이 확인된다.²⁶⁾ 무관 흉배의 문장 종류가 달라진 것이다. 대한제국 이후의 기록인 『예복(禮服, 1897)』에는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단지 명칭만 약간 차이가 있으니 무관 1-3품까지 쌍운호(雙雲虎), 무관 4품에서 9품까지 단운호(單雲虎)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흉배의 명칭 제시 없이 조잡한 도상<그림 3>²⁷⁾만이 실려 있는데 당상관의 쌍호흉배와 당하관의 단호흉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쌍호흉배나 단호흉배의 호랑이 무늬는 염밀하게 말해서 몸통에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가 아니고 점무

늬가 있는 호랑이, 즉 표범이다. 호랑이 대신 표범이 사용되게 된 것은 표흉배를 호흉배보다 우위에 두었던 청나라 제도를 따른 것이다.

표범을 ‘호’라고 부르는 것은 호랑이와 표범을 비슷한 것으로 인식해 온 우리 민족의 오래된 관습 때문이었다. 성현(成倪,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도 호랑이[虎]와 표범[豹]을 비슷한 것으로 지적²⁸⁾하고 있다. 또한 18세기 유물로 추정되고 있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한호팔곡병(閑虎八曲屏)」에도 줄무늬 호랑이와 점무늬 호랑이[豹]가 함께 묘사²⁹⁾되어 있는데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호랑이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 후기 놀암대화상(訥庵大和尚, 1752-1830)의 진영에 그려진 호랑이와 표범 역시 호랑이[虎·扁]로 기록³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선시대에 호랑이와 표범을 같은 호랑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판찬 사료들을 중심으로 무관 흉배제도를 살펴보면 문관의 흉배 규정 원칙과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영조대에 문무관 흉배 모두 당상·당하로 구분하는 이등구조를 정착시켰지만 초기에는 문관의 경우, 품계별로 각각의 흉배를 사용한 것에 반하여 무관은 1품과 2품이 한 종류의 흉배를 사용하여 관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세기 전기에 이미 문관은 명·청의 1품용 운학흉배를 수용한 것과는 달리, 무관의 흉배는 『경국대



〈그림 4〉 傳 吳自治 초상화와 호표흉배(세부)

〈그림 5〉 16세기 후기 호표흉배
(의인박씨 묘 출토)

전』의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명나라 3·4품과 5품의 것을 조선 후기 내내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는 점이다. 이는 문(文)보다 무(武)를 경시하던 신분 의식³¹⁾의 표출로 해석된다.

2. 흉배 유물과 초상화를 통해 본 무관 흉배의 실제

관찬 기록에서 무관의 흉배는 ‘호표·옹비’, 또는 ‘쌍호·단호’와 같은 이분법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만 관찬 이외의 기록이나 흉배 유물, 초상화 자료를 볼 때, 조선시대 무관의 흉배로 사용되었던 길짐승흉배는 다음과 같이 6종으로 정리된다.

1) 호표흉배(虎豹胸背)

조선 초기 호표흉배에는 큰 호랑이[虎]와 작은 표범[豹]이 묘사되어 있다. 호·표 모두 갈기가 없는 매끈한 머리에 가늘고 긴 꼬리가 달렸는데 호랑이는 몸통에 길고 가는 줄무늬가 있으며 표범에는 점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동일한 호표흉배는 세조 13년(1467)에 일어난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으로 책록된 전(傳) 오자치(吳自治, 생몰미상) 초상화(그림 4)³²⁾에서 확인된다. 또한 16세기 후기 의인(宜人, 정6품 부인) 박씨(朴氏) 묘에서 출토된 호표흉배 유물(그림 5)³³⁾에서도 확인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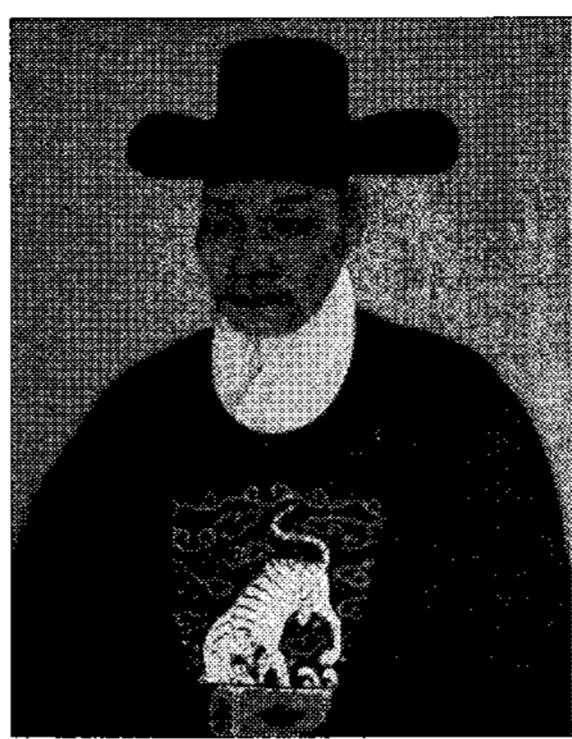
〈그림 6〉 ‘옹비흉배’로 명명되었던
쌍호흉배의 ‘표범’ 도상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수 있다. 박씨의 단령에 부착되어 있던 흉배는 무관 1·2품용 호표흉배이다. 남편의 품계(정4품)와는 물론 다르지만 박씨의 사망 당시 품계인 ‘의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의 품계보다 높은 품계의 흉배를 사용하는 것은 당시의 후장(厚葬) 풍속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당시 흉배 사용의 문란함 때문일 것이다.

한편 3품 당상관용 옹비흉배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은사 옹비흉배(그림 6)³⁴⁾라는 것은 흉배의 크기가 15.8×16.9cm로 작은 크기이다.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바탕 옷감도 후기의 유록색 운문 단인 것으로 보아 대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그림 7>『三才圖會』의 호홍배



<그림 8>『登俊試帖(1774)』의 安宗奎 초상화와 호홍배

것³⁵⁾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웅비홍배가 19세기 후기에 지속되었다고 하는 자료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말 황옹기(黃熊旗)에 묘사된 웅(熊)의 모습³⁶⁾과도 전혀 다르다. 따라서 고대 박물관 소장의 길침승홍배 유물은 국말 은사(銀絲) 쌍호홍배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2) 호홍배(虎胸背)

임란 후 선조대와 광해군대, 그리고 인조대에는 많은 공신 도상이 제작되었다. 그중에는 무관 도상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호홍배(虎胸背)³⁷⁾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된다. 명나라의 『삼재도회(三才圖會, 1607)』에 ‘호홍배<그림 7>’와 ‘표홍배(豹胸背·표범홍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조선

에서는 명나라의 호홍배제도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04년 선무공신 2등의 권응수(權應銖, 1546-1608) 초상화<표 2-1>³⁸⁾와 선무공신 3등 조경(趙敬, 1541-1609) 초상화<표 2-2>³⁹⁾, 이운용(李雲龍, 1562-1610) 초상화<표 2-3>⁴⁰⁾, 1604년 호성공신 3등 고희(高曦, 1560-1615)의 초상화⁴¹⁾, 1613년 위성공신(衛聖功臣) 3등 한천두(韓天斗, 1563-1649) 초상화<표 2-4>⁴²⁾, 1623년의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 박유명(朴惟明, 1582-1640)의 초상화<표 2-5>⁴³⁾와 정사공신 3등 이원영(李元榮)의 초상화<표 2-6>⁴⁴⁾에서 호홍배를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호홍배를 사용한 무관들은 종2품에서 종4품에 해당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위성공신으로 책록된 한천두는 천인(賤人)임⁴⁵⁾에도 불구하고 공신으로 책록되어 호홍배를 부

<표 2> 무관 초상화의 호랑이홍배

① 1604년 권응수	② 1604년 조경	③ 1604년 이운용	④ 1613년 한천두	⑤ 1623년 박유명	⑥ 1623년 이원영
호군(정4품)	황해병사(종2품)	좌수사(정3품)	관서지방 천인	무장	강화부사(종3품)
선무공신(2등)	선무공신(3등)	선무공신(3등)	위성공신(3등)	정사공신(3등)	정사공신(3등)
밀양부사(종3품)	남도방어사(종2품)	부총관(정3품)	-	서산군수(종4품)	가선대부(종2품)

착한 흑단령의 공신도상을 그렸음을 볼 때 공신도상에 보이는 홍배는 품계보다도 오히려 공신 등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17세기 초 공신도상의 홍배 바탕색은 대부분 홍색이며 구름은 가로 방향으로 길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랑이는 한 마리만 묘사되어 있으며 연한 갈색 바탕에 짙은 갈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고 좌우의 작은 귀가 쫑긋 솟았으며 길고 가는 꼬리가 달려 있다. 권응수 초상화 이외에는 호랑이의 얼굴 방향이 착용자의 오른쪽 가슴을 향하고 있으며 갈색 몸통에는 호랑이의 특징인 줄무늬가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공신도상의 품대는 대부분 삽금대(鍛金帶)와 학정대(鶴頂帶)로 확인되는데 공신의 품계와 품대의 종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편 영조 50년(1774)의 『등준시첩(登俊試帖)』에 보이는 안종규(安宗奎)⁴⁶⁾의 반신 초상화에 줄무늬가 있는 흰색 몸통의 호랑이홍배<그림 8>가 묘사되어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줄무늬 호홍배의 초상화로는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영조 대 말까지는 줄무늬 호랑이의 호홍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해치홍배



<그림 9> 해치홍배 도상(『大明會典』)

『경국대전』에 의하면 해치홍배는 본래 문관 대사헌의 홍배로 제정되었던 것이다. ‘해타’, 즉 해태라고도 불렸던 해치는 두 사람이 싸우면 사나운 자를 머

리 뿐로 찌르기 때문에 못된 것을 꾸짖고 바른 말을 하라는 뜻⁴⁷⁾을 지녔다고 한다.

임란 직후인 17세기 초에는 무관도 해치홍배를 사용하였다. 1609년에 사망한 무신(武臣) 조경의 무덤에서도 해치홍배가 발굴되었을 뿐만 아니라 1623년의 정사공신(靖社功臣) 도상과 이듬해의 진무공신(振武功臣) 도상 등, 즉 인조 초기에 제작된 공신도상에서 해치홍배를 사용한 무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명나라 말년에 무관들이 해치홍배를 착용했다⁴⁸⁾고 하니 임란 때 지원군으로 조선에 주둔하였던 명나라 무관들의 홍배를 모방하여 조선의 무관들도 해치홍배를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문헌 자료에는 무관이 해치홍배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나 인조 초기에 그려진 공신도상에서 당시 무관이 해치홍배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대명회전』의 해치홍배 도상<그림 9>이나 임란 이후 공신도상, 그리고 유물에서 확인되는 해치의 형상은 머리 중앙에 길게 뻗은 한 개의 뿔과 정수리에 수북게 솟아 오른 초록색 갈기, 흰 몸통이 특징이다. 해치는 동망산(東望山)에 있는 신수(神獸)로, 1각(角)에 사족(四足)의 양(羊)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⁴⁹⁾는 『삼재도회』의 설명과 일치한다. 주둥이가 앞으로 돌출한 편이고 벌린 입 사이에는 날카로운 이빨과 혀가 드러나 있다. 붉은 영기(靈氣)에 감싸인 몸통은 흰 빛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중로(李重老)나 정충신(鄭忠信)의 초상화에서처럼 비늘이 묘사⁵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목에서 가슴에 이르기까지 긴 색동 띠 형상의 목선이 표현되어 있으며 긴 꼬리 끝에는 풍성한 초록색 털이 달려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해치홍배 유물은 지금 까지 두 점이 공개되었다. 한 점은 숙종대에 대사헌(종2품)과 관찰사(종2품)를 지낸 임영(林泳, 1649-1694)의 유품⁵¹⁾인데 붉은 색 바탕에 뿔 하나가 달린 전형적인 해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유물은 무관의 홍배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1점은 1604년 선무공신 3등에 책록된 조경(趙敬, 1541-1609)의 묘에서 출토된 해치홍배이다<표 3-1>. 그의 공신도상에는 호홍배(虎胸背)가 묘사되어 있으나 무

〈표 3〉 무관 초상화와 유물에 나타난 해치홍배

① 1609 조경 유품	② 1623년 이중로	③ 1623년 구인후	④ 1624 정충신	⑤ 1624년 이수일	⑥ 1694 임영 유품
황해병사(종2품) 선무공신(3등) 어영대장(종2품)	강화부사(정3품) 정사공신(2등) 부윤(종2품)	진도군수(종4품) 정사공신(2등) 통제사(종2품)	방어사(종2품) 진무공신(1등) 병마절도사(종2품)	병마절도사(종2품) 진무공신(2등) 통제사(종2품)	1649-1694 대사헌(종2품) 관찰사(종2품)

덤에서는 해치홍배(34.5×34.5cm)가 출토된 것이다.⁵²⁾ 얇은 사(紗) 바탕에 광택 좋은 푸사와 색 연사를 사용하여 해치와 구름, 불로초, 파도 등을 수놓았는데 수를 놓지 않은 부분에는 얇은 사(紗) 바탕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당시 유행하였던 납사수(納紗繡) 기법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1623년의 정사공신 이중로(李中老, 1577-1624)〈표 3-2〉와 1624년의 진무공신 정충신(鄭忠信, 1576-1636)〈표 3-4〉, 이수일(李守一, 1554-1632)〈표 3-5〉 등 17세기 초 무관 초상화에서 해치홍배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사맹(具思孟, 1531-1604)의 초상화라고 전해지는 한 초상화〈표 3-3〉에서도 해치홍배가 확인되는데 구사맹보다는 손자인 정사공신 구인후(具仁厚, 1578-1658)의 도상일 가능성이 크다.⁵³⁾ 이들 도상을 살펴보면 공신 책록 직후의 품계가 모두 종2품으로 확인되며 품대는 서대(犀帶)와 삽금대, 학정대가 확인된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1623년 정사공신 도상에서는 호홍배〈표 2-5·6〉와 해치홍배〈표 3-2·3〉가 동시에 확인되는데 해치홍배를 사용한 공신들이 호홍배를 사용한 공신들보다 관직은 물론, 공신 등급도 더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로 중앙의 내직(內職)에 있던 무관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무관이 해치홍배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설이 지금까지의 통념이었다. 그러나 『임하필기』에는 영조 때 도현(都憲)의 해치홍배[獅豸襍子] 제도를 회복하라⁵⁴⁾고 한 기록이 보인다. 이는 정축년(1757)에 대사헌의 옥정자와 해치홍배를 모두 예전대로 하라고 하였다⁵⁵⁾고 한 『연려실기술(燃藜室

記述)』의 기록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정조 9년(1785)년 기사에도 ‘해치홍배가 현재 사헌부 안에 있다고 하니 신칙하여 구제(舊制)를 회복하라.’⁵⁶⁾고 하였으니 이는 영·정조대에 해치홍배가 보관되어 있을 뿐,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기사를 볼 때, 18세기 영·정조대에는 무관이나 문관 대사헌 모두 해치홍배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사자홍배[獅胸背]



〈그림 10〉 사자홍배 도상(『大明會典』)

조선시대의 사자홍배는 근래에 발표된 몇 연구⁵⁷⁾에서 그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대명회전』에 실린 명나라의 무관 1·2품용 사자홍배의 도상은 〈그림 10〉과 같다. 초기에는 도통사의 홍배로 사자홍배가 사용되었지만 『경국대전』에 사자홍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자홍배는 사용하지 않았을

〈표 4〉 무관 초상화에 나타난 사자흉배

①김여운(현종 6년)	②무관(숙종 말기)	③이익필(영조대)	④김중만(영조대)	⑤조완(1774)
1596-1665 오위장(종2품)	-	1674-1751 병마절도사(종2품)	?-1755 병마절도사(종2품)	『등준시첩(1774)』 통제사(종2품)
⑥최조악(1774)	⑦신경유(1581-1633)	⑧남이홍(1576-1627)	⑨김완(1577-1635)	⑩신옹주(정조대)
『등준시첩(1774)』 병마절도사(종2품)	정사공신(2등) 병조판서 추증	진무공신(1등) 영의정 추증	진무공신(3등) 병조판서 추증	1747-1804 -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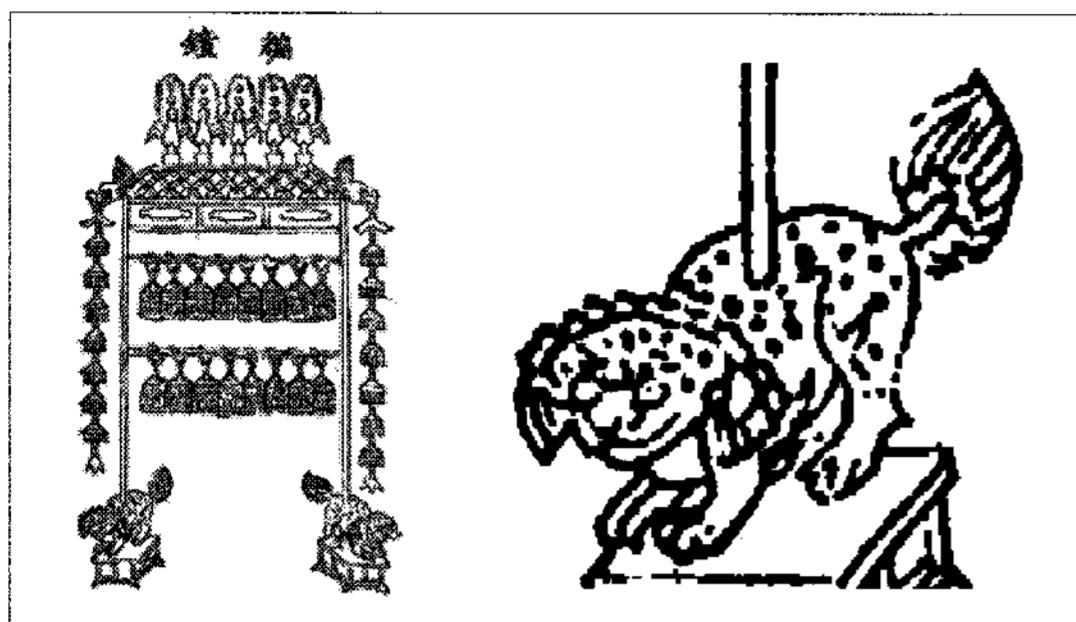
300여년 뒤인 정조·순조대의 문헌에서 다시 사자흉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794년 조선에 왔던 대마도 통사(通詞)의 저술인 『상서기문(象胥紀聞)』에는 조선의 무관이 기린(麒麟)과 사자(獅子), 호표(虎豹) 흉배를 사용한다⁵⁸⁾는 기록이 보인다. 기린은 당시 대군이 사용하던 흉배이므로 무관은 사자와 호표흉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순조 9년(1809)의 『규합총서』에도 무관 당상관이 ‘쌍사’, 당하관이 ‘독사’, 변장류가 ‘호랑흉배’를 사용한다고 한 기록이 보인다. 무관의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의 구분이 흉배문양으로 구분되었음을 사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19세기 초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810)』에도 당시 무관이 사자[獅]와 호랑이[虎] 흉배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상의 세 기록 모두 사자흉배와 호랑이흉배가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사자흉배제도가 폐지되기 직전의 자료이므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느 시기부터 사자흉배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도상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영조 50년(1774)의 『등준시첩(登俊試帖)』은 정조·순조대의 기록보다 20여년 앞선 자료인데 사자와 점무늬 호랑이, 즉 두 종류의 흉배 문양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시첩(試帖)에는 등준시⁵⁹⁾를 실시하게 된 내력이 기록되어 있으며 문과 합격자 15인과 무과 합격자 18인의 명단, 그리고 무과 합격자의 반신 초상화가 실려 있다.⁶⁰⁾ 『상서기문』 등의 세 기록에 언급되어 있는 호흉배를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남은 하나의 길짐승은 사자로 볼 수밖에 없다. 조완(趙山完)⁶¹⁾과 최조악(崔朝岳)⁶²⁾ 등의 초상화에 보이는 흉배<표 4-5·6>를 사자흉배라고 할 수 있는데 ‘붉은 점무늬가 있는 사자’와 ‘점무늬가 없는 사자’가 같은 시기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등준시첩』의 초상화에 보이는 길짐승이 ‘사자’라고 판단하는 또 하나의 단서는 하단의 장식으로 사자 형상을 사용하는 편종(編鐘)이라는 악기에서 찾을 수 있다. 1493년의 『악학궤범(樂學軌範)』⁶³⁾이나 1790년 『춘관통고(春官通考)』⁶⁴⁾에 보이는 편종 받침에는 점무늬가 없는 사자⁶⁵⁾가 묘사되어 있지만 1827년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의 편종에는 점무늬가 있는 사자<그림 11>⁶⁶⁾가 묘사되어 있다.



〈그림 11〉『整禮儀軌(1827)』의 編鐘과 사자



〈그림 12〉 17세기 전의이씨 사자흉배
(정영양자수박물관 소장)

『등준시첩』이나 『정례의궤』의 편종에 묘사된 사자 모습과 유사한 흉배 도상은 18세기 전기의 초상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평정하여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으로 책록된 이익필(李益鵠, 1674-1751)〈표 4-3〉⁶⁷⁾과 이만유(李萬維, 1684-1730)의 초상화,⁶⁸⁾ 김중만(金重萬, 1681-1755)의 중년(1728년)과 말년〈표 4-4〉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등근 점이 찍힌 흰색의 길짐승 흉배가 18세기 전기부터 중기까지의 사자흉배이다.

한편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17세기 중엽 김여온(金汝溫, 1596-1665, 종2품) 묘에서 출토된 수의용 운문단 단령에 달려 있던 금사(金絲) 길짐승흉배〈표 4-1〉는 선행연구에서 해치흉배 혹은 사자흉배의 가능성이 있다⁶⁹⁾고 지적되었던 흉배이다. 이 유물은 금사로 수를 놓은 것이므로 색상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뉴욕 소더비(Sotheby) 경매도록에 실린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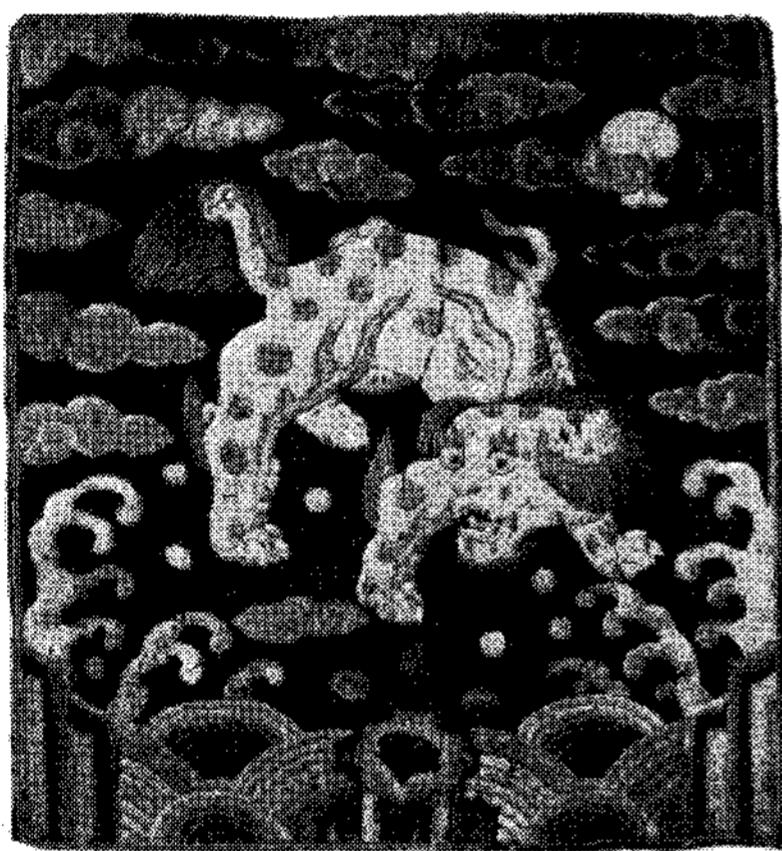
관 초상화⁷⁰⁾에서 김여온의 흉배와 매우 유사한 흉배 도상〈표 4-2〉이 확인됨에 따라 본래의 색상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흰 몸통에 곧게 솟은 초록색 갈기와 초록색 꼬리털이 달렸으며 머리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둥글게 말린 머리털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사모의 모습이나 구도 등으로 볼 때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숙종대 말기의 초상화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김여온이나 무명(無名)의 무관 초상화에 보이는 흉배가 주둥이가 돌출된 편이기는 하지만 17세기 초 해치흉배의 해치 형상에서 발전된 사자흉배라고 하겠다.

최근 정영양자수박물관에서 전의이씨(全義李氏) 사자흉배(34×34cm)〈그림 12〉를 공개하였다. 정2품 좌참찬을 지낸 이준민(李俊民, 1524-1590)의 것으로 소개되었으나 금사(金絲) 회문(回紋)이 둘려진 것으로 보아 17세기 중후기의 청나라 흉배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중국의 것이라 해도 조선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연한 녹색 문주(紋紗) 바탕에 풍사로 수를 놓았는데 사자 본래의 모습보다는 주둥이가 약간 돌출한 편이며 몸통은 청색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머리 주변에 동글동글하게 굴려진 갈기가 표현되었다.

사자흉배의 사자 도상은 사실적인 사자 모습에서 해치의 모습이 가미된 17세기 후기 김여온 흉배와 숙종대 말기 무인 초상화의 사자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가 영조대의 이익필 초상화 흉배에 그려진 붉은 점의 사자 모습〈표 4-3〉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시기까지는 주둥이가 약간 나오고 갈기가 약간 솟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18세기 전기에서 중기까지의 이만유, 김중만 초상화 흉배에서는 초록 갈기가 양옆으로 쳐진 형태로 변화되었다. 영조대 말기의 『등준시첩』에는 더 부드러운 사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며 사자 몸통은 이미 청색에서 흰색으로 변화되는데 이는 조선 후기 문관의 날짐승흉배에서도 공작이나 운안처럼 색상이 있는 새[鳥] 대신학(鶴)이나 백한(白鶲), 노사(鷺鶩) 등 흰 몸통을 지닌 새로 변화, 정착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는 초기의 사자 모습과는 다른 사자의 모습이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8세기 후기 신응주(申應周, 1747-1804) 초상화의 흉배〈표 4-10〉⁷¹⁾

역시 부드러워진 18세기 후기의 사자흉배인데 붉은 점은 없어지고 흰색 몸통에 옅은 색의 둥근 점을 표현하고 있다. 종2품용 학정대를 띠고 있으니 사자흉배를 사용하고 있는 종2품의 다른 무관 도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치흉배로 명명되어 있는 고려대 학교 박물관 소장의 길짐승흉배(27.3×29.2cm)는 사자흉배<그림 13>⁷²⁾로 수정되는 것이 옳다. 사자 도상이나 흉배의 크기로 볼 때 신옹주 초상화와 유사한 시기인 18세기 후기 정조대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13> 해치흉배로 소개되었던 18세기 후기의 사자흉배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한편 1623년 정사공신 신경유(申景裕, 1581-1633, 병조판서 추증)<그림 4-7>와 1624년 진무공신 남이홍(南以興, 1576-1627, 영의정 추증)<그림 4-8>과 김완(金完, 1577-1635, 병조판서 추증)<그림 4-9>의 초상화에는 더욱 부드러워진 사자 모습이 확인된다. 이미 김완의 초상화는 추증될 당시 그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⁷³⁾ 초상화의 인물들은 17세기 전기 인물들이지만 흉배 도상은 이색(異色) 점무늬 없는 흰 몸통에 초록색 귀가 부드럽게 늘어져 있고 뿔도 없으며 주둥이도 짧아지는 등, 거의 18세기 영·정조대의 사자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제작시기를 짐작하게 한다.

5) 쌍호(雙虎) · 단호(單虎) 흉배

쌍호흉배와 단호흉배는 이미 무관 흉배의 대명사가 되었다. 조선 말기의 제도이므로 다른 흉배에 비해서 유물도 많이 남아 있다. 쌍호·단호흉배는 그 명칭은 분명 ‘호(虎)’이지만 그 도상은 청나라 무관 3품용 표흉배(豹胸背) 도상이다.

정조대와 순조대의 18세기 말 『상서기문』의 호표흉배, 19세기 초 『규합총서』의 ‘호랑흉배’, 『여유당전서』에 호흉배라고 하는 것이 줄무늬의 호랑이 흉배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무늬의 호랑이(표범) 흉배를 뜻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정조대의 인물

<표 5> 쌍호흉배의 무관 초상화

①이주국(1721-1798)	②신옹주(1772-1839)	③신현(1810-1888)	④신정희(1833-1895)
1784년(64세) 총용사(종2품)	1835년(64세) 훈련대장(종2품)	1870년(61세) 훈련대장(종2품)	1895년(63세) 강화부 유수(종2품)

〈표 10〉 실제 사용된 무관의 길짐승홍배 종류와 사용 시기

시기	호표홍배	호홍배	해치홍배	사자홍배	쌍호·단호홍배
조선 전기	1454	1·2품	-	대사헌	도통사
	1467	오자치(적개2등)	-	-	-
	16세기 후기	의인박씨 묘 출토	-	-	-
선조 정해 인조	1604	-	권응수(선무2등) 조경(선무3등) 이운룡(선무3등) 고희(호성3등)	-	-
	1609	-	-	조경 묘 출토	-
	1614	-	한천두(위성3등)	-	-
	1623	-	박유명(정사3등) 이원영(정사3등)	이종로(정사2등) 구인후(정사2등)	-
인조 영조	1624	-	-	정중신(진무1등) 이수일(진무2등)	-
	17세기	-	-	-	전의이씨 유품
	1665	-	-	-	김여온 묘 출토
	숙종대 말	-	-	-	무관초상화
	1694	-	대사헌 임영 유품	-	-
	1728	-	-	-	이익필·이만유· 김중만
정조 순조	1774	-	안종규 『등준서첩』	-	조완·최조악 『등준서첩』
	18세기 말기	-	-	-	신옹주 초상화 고려대학교 유물 신경유·남이홍· 김완 초상화
	1784	-	-	-	-
	1794	-	-	-	『상서기문』
	1809	-	-	-	『규합총서』
순조 종	1810	-	-	-	『여유당전서』
	1835	-	-	-	-
	1839	-	-	-	『연경재전집』
	1870	-	-	-	신현(61세)
신정희	1895	-	-	-	신정희(63세)

인 이주국(李柱國, 1721-1798)의 64세(1784) 때의 초상화(표 5-1)⁷⁴⁾에 표범 1쌍이 묘사된 홍배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때 정조대에는 사자홍배와 함께 표범 무늬의 쌍호홍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문관의 쌍학·단학홍배제도가 완성된 것 역시 정조 때⁷⁵⁾이기 때문이다.

『실록』에서는 고종 8년(1871) 기록에 비로소 쌍호·단호홍배가 확인되지만 19세기 전기 성해옹(成海應, 1760-1839)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는 이미 무관 당상관은 쌍호(雙虎)를, 당하관은 단호(單

虎) 홍배를 단다⁷⁶⁾고 명시되어 있다. 이 자료는 지금 까지 확인된 자료 중 쌍호·단호홍배에 관한 첫 기록으로 주목된다. 따라서 점무늬의 호홍배는 정조 때에 사자홍배와 함께 사용되다가 순조대에 이르러 쌍호·단호홍배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후기 중앙의 핵심적인 무관을 배출한 평산신씨 문희공파(文僖公派)⁷⁷⁾ 신홍주(申鴻周, 1772-1839)⁷⁸⁾와 신현(申愬, 1810-1888),⁷⁹⁾ 그리고 신정희(申正熙, 1833-1895) 초상화(1895)⁸⁰⁾에는 전형적인 표범 무늬의 쌍호홍배가 묘사되

어 있다. 단호홍배는 별도의 유물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려진 것이므로 언급을 생략하고자 한다.

이처럼 기록에만 보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웅비홍배를 제외하면 조선시대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무관의 홍배는 호표홍배, 호홍배, 해치홍배, 사자홍배, 쌍호홍배, 단호홍배 등, 모두 6종이다. 그리고 홍배에 사용된 길짐승의 종류는 호랑이와 표범, 해치, 사자 등 4종이 된다. 각각의 길짐승홍배가 사용되었던 시기를 기록과 유물, 초상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IV. 맷음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와 홍배유물, 그리고 초상화에 나타난 실증적인 자료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무관의 홍배제도와 실제 사용된 홍배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종실록』과 『경국대전』에서 확인되듯이, 조선 초기의 무관 홍배제도는 1·2품용 호표홍배(虎豹胸背)와 3품 당상관용 웅비홍배(熊羆胸背)로 이분화된 구조로 출발하였다. 이 제도는 명나라의 무관 홍배제도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되, 품계를 2등씩 내려서 적용하는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숙종 17년(1691)에 무관의 길짐승홍배[走獸胸背] 사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무관들이 홍배제도를 지키도록 신속한 바 있으며 영조 10년(1734)에도 무관들이 문관용 학홍배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규제가 내려지는 등 홍배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숙종 18년(1692)에는 문무관 모두 홍배 사용의 범위를 6품까지 확대하였다. 영조 22년(1746) 『속대전(續大典)』에는 당상3품 이상과 당하3품 이하로 구분하여 『대전(大典)』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는데 고종 2년(1865)의 『대전회통(大典會通)』까지 일관된 제도로 기록되어 있다. 고종 8년(1871)의 『실록』 기록에서 비로소 무관 당상관은 쌍호, 당하관은 단호홍배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여 대한제국 이후의 『대한예전(大韓禮典)』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법전 등 관찬(官撰) 자료에서는 고종 8년 전까

지 호표·웅비홍배제도와 그 이후의 쌍호·단호홍배제도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품계 구분을 위한 이분법적 구조는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홍배 사용자의 범위는 숙종대 이후 6품까지, 영조 때에 9품까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된 홍배제도는 법전에 제시되어 있는 홍배제도와는 달랐다. 실증적 자료를 통해 살펴본 무관의 길짐승홍배는 모두 6종이었으며 문양으로 사용된 길짐승의 종류는 호랑이, 표범, 해치, 사자 등 4종이었다. 임란 전 무관의 홍배는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호표와 웅비, 두 종류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서는 호표홍배만 전(傳) 오자치(吳自治) 초상화와 의인박씨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호홍배는 명나라의 변화된 무관홍배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임란 직후 1604년의 선무공신(宣武功臣)과 호성공신(護聖功臣), 1613년의 위성공신(衛聖功臣) 도상에서, 그리고 영조 말, 1774년의 안종규(安宗奎) 초상화에서 확인되었다. 세째, 해치홍배는 본래 대사헌의 홍배로 제정되었던 것이지만 명나라 무관들이 사용함에 따라 조선 무관들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09년 사망한 조경(趙敬)의 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1623년 정사공신(靖社功臣)과 1624년 진무공신(振武功臣) 도상에서 확인되었다. 1623년 정사공신 도상의 호홍배 사용 공신과 해치홍배 사용 공신을 비교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해치홍배를 사용한 무관들의 품계와 공신 등급이 높았다. 넷째, 사자홍배는 지금까지 해치홍배로 인식되어온 경향이 있었으나 정조·순조대의 『상서기문(象胥紀聞, 1794)』, 『규합총서(閨閣叢書, 1809)』,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810)』 기록에서 사자홍배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17세기 전의이씨의 사자홍배 유물을 비롯하여 김여온(金汝溫, 1596-1665)의 사자홍배와 초상화 등을 통해 현종대와 숙종대의 사자홍배가 확인되었으며 영조 4년(1728) 문무공신 이익필(李益馳, 1674-1751)과 이만유(李萬維, 1684-1730), 김중만(金重萬, ?-1755), 의 초상화에서 붉은 점무늬의 사자홍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774년 『등준시첩(登俊試帖)』의 반신도상을 통해 18세기 영조대의 사자홍배를, 정조 대의 신옹주(申應周, 1747-1804)

의 초상화와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을 통해
옅은 색 점무늬가 있는 18세기 말 마지막 단계의 사
자흉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선 말기의
쌍호흉배와 단호흉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의 호랑이는 줄무늬의 호랑이가 아니라 청나라
무관 3품 흉배에 해당되는 점무늬의 표범 모양이었
다. 초상화 중에 정조대(1784)의 이주국(李柱國, 1721-
1798) 초상화에서 표범무늬의 쌍호흉배가 처음 확인
되었으며 평산신씨 문중의 신흥주(申鴻周, 1772-1829)
와 신현(申愬, 1810-1888), 신정희(申正熙, 1833-1895)
등의 무관 초상화에서 쌍호흉배가 확인되었다.

이렇듯, 조선의 무관 흉배제도는 법전에 나타나는
제도와 실제 사용된 흉배와는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중국의 영향 하에서 변화되어간 무관흉배
제도는 꾸준하게 이분법이 적용됨으로써 문관의 흉
배제도보다 단순한 제도가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관보다 무관의 품계 구분이 덜 중요하였음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조선사회가 무(武)보다는 문
(文)을 중시한 사회였음을 뜻한다. 그리고 문관의 날
짐승흉배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다양한 색상의 길
짐승 도상이 존재하였으나 17세기 이후 해치흉배를
비롯하여 사자, 호랑이, 표범 모두 흰색 몸통의 길짐
승 도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무관 초상화
해설이나 흉배 유물에 대한 명명 또는 해설에 도움
이 되길 기대한다. 흉배 유물의 진위 감정(鑑定)이나
시대 판정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흉배의 바탕
옷감과 흉배의 크기, 부문(副紋)의 종류와 조형적 특
징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肅宗實錄 卷23 肅宗 17年 3月 乙巳.
- 2) ①김영재 (2000). 중국과 우리나라 흉배(胸背)에 관한 고찰. 韓服文化, 3(3), pp. 45-55. ②오경미, 전혜숙 (2000). 조선 후기 흉배변화에 관한 연구. 韓服文化, 3(1), pp. 117-133.
- 3) 大明會典 卷61, 11b, 20a-23a.
- 4) 王圻 (1607). 三才圖會 衣服 2卷, 上海古籍出版社, pp. 1530-1531.
- 5) 明史 卷67 志43 輿服3 1638.
- 6)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2004). 실의 비밀, p. 97.
- 7) 大清會典 卷48 官員士庶冠服, 12b-13a.
- 8) 민족문화추진회 (1991). 연행록선집 Ⅲ, p. 158.
- 9) 清會典圖 卷66 冠服8, 661d-680b.
- 10) 世宗實錄 卷111 世宗 28年 1月 辛卯.
- 11) 端宗實錄 卷11 端宗 2年 12月 丁丑.
- 12) 위의 책, 卷11 端宗 2年 12月 丙戌.
- 13) 經國大典 卷3 儀章 10b. 「端宗實錄」의 응표흉배는 응
비흉배의 오기로 보인다.
- 14) 이은주 (2005). 조선시대 백관의 時服과 常服 제도 변
천. 服飾, 55(6), p. 49.
- 15) 燕山君日記 卷60 燕山君 11年 11月 甲辰.
- 16) 하명은, 이은주 (2007). 날짐승흉배의 감정(鑑定)을
위한 기준 설정. 韓服文化 10(3), p. 164, p. 172.
- 17)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3). 坡平尹氏 母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Ⅱ, p. 84.
- 18) 肅宗實錄 卷23 肅宗 17年 3月 乙巳.
- 19) 英祖實錄 卷之39 10年 12月 丁未.
- 20) 국가문화유산포털 충남 당진 시도유형문화재 제84호
<http://www.heritage.go.kr/index.jsp>
- 21) 이강칠 외 (2003).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현암사, p. 495.
- 22) 肅宗實錄 卷24 肅宗 18年 12月 癸未.
- 23) 英祖實錄 卷61 英祖 21年 5月 丁酉.
- 24) 繢大典 卷3 17a-b.
- 25) 大典通編 卷3 15a.
- 26) 高宗實錄 卷8 高宗 8年 2月 10日.
- 27) 大韓禮典 卷5 48b.
- 28) 成倪, 傭齋叢話 卷7 物有相類者甚繁…(중략)...虎與豹
相類.
- 29)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7). 名品圖錄, pp. 171-172. 閑
虎八曲屏.
- 30) 문화재청 편 (2007). 한국의 초상화, pp. 410-411.
- 31) 肅宗實錄 卷17 12年 閏4月 丙子.
- 32) 이강칠 외 (2003). 앞의 책, p. 68.
- 33) 경기도박물관 (2004). 경기도박물관 명품선, p. 275.
- 34) 繢林苑 (1979). 胸背, 知慧社, p. 57.
- 35) 하명은 (2005). 조선시대 문관 흉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1.
- 36) 국립고궁박물관 (2007). 전시안내도록, p. 279. 황옹기
의 길짐승 '웅(熊)'의 모습은 「대명회전」의 응비흉배
도상과 유사하다. 大明會典 卷61 p. 21b.
- 37) 三才圖會 衣服 2卷 p. 43.
- 38) 국립진주박물관 (1997). 임진왜란, p. 95.
- 39) ①이강칠 외 (2003). 앞의 책, pp. 90-91. ②宣祖實錄
卷175 37年 6月 甲辰. 「宣祖實錄」에는 조경이 선무공
신 2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 40) 이강칠 외 (2003). 앞의 책, pp. 132-133.
- 41) 문화재청 편 (2007). 앞의 책, p. 436.
- 4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3). 韓國服飾, 11,
p. 163.
- 43) 문화재청 편 (2007). 앞의 책, p. 83.
- 44) KBS TV진품명품, 2007년 9월 23일 방영.

- 45) 光海君日記 卷62, 5年 1月 乙酉.
- 46) 英祖實錄 卷118 48年 1月 乙巳. 안종규는 1772년에 경상 병사를 지냈으나 삭직 당했다.
- 47) 憑虛閣李氏 (1809). 鄭良婉譯註 (1975). 閨閣叢書. 寶晉齋, p. 141.
- 48)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2004). 앞의 책, p. 97.
- 49) 三才圖會 卷之鳥獸 3, p. 4a-b.
- 50) ①경기도박물관 (2008). 초상, 영원을 그리다, p. 23.
②문화재청 편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2: 복식·자수편, pp. 155-156.
- 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고문서에 담긴 옛 사람들 의 생활과 문화, p. 32. 문중에서는 이 유물의 도상을 기린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해치로 보는 것이 옳다.
- 52) 서울역사박물관 (2003). 趙敬墓出土遺衣, p. 13.
- 53) 조선미 (1994). 韓國肖像畫 研究, 열화당, p. 230.
- 54) 李裕元. 林下筆記 卷15 ○玉頂子 '… 都憲獬豸褶子 亦復舊制.'
- 55) 燃藜室記述 別集 卷13 政教典故 冠服.
- 56) 正祖實錄 卷20 9年 6月 乙酉.
- 57) ①오경미, 전혜숙 (2000). 앞의 책, p. 120. ②이은주, 박가영 (2007). 英祖代 大射禮儀 참여자의 복식 유형 고증. 服飾, 57(2), pp. 106-107.
- 58) 小田畿五郎(栗田英二 譯註) (2005). 象胥紀聞, 이회, p. 151.
- 59) 등준시는 뛰어난 인재를 관원으로 선발한다는 뜻을 가진 특별시험으로, 세조 때 처음으로 종친, 하급 문·무신 중에서 왕실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도록 하였다.
- 60) 英祖實錄 卷122 50年 1月 壬午.
- 61) 조완(趙山完)은 1771년에 북병사(北兵使, 종2품), 1775년에는 통제사(종2품)가 되었다.
- 62) 英祖實錄 卷119 48年 9月 己酉. 최조악(崔朝岳)은 당시 병마절도사(종2품)였다.
- 63) 樂學軌範 卷6 編鐘 3b.
- 64) 春官通考 卷36 吉禮 文宣王廟 編鐘,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1975) 春官通考 上, p. 833.
- 65) 李在淑 外 (1998).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서울대학교 출판부, 圖 8.
- 66)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首 圖式 29a.
- 67) 온양민속박물관 (2005). 앞의 책, p. 80. 설명에는 해치흉배로 설명하고 있다.
- 68) 국가문화유산포털 전남 담양군 사도유형문화재 제148호 <http://www.heritage.go.kr/index.jsp>
- 69)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p. 141.
- 70) Sotheby's (1996). Korean Works of Art. New York, Sep. 17, pp. 52-53.
- 71) 아주문화학회 (2003). 위대한 얼굴, p. 97.
- 72)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앞의 책, p. 135.
- 73) 조선미 (1994). 韓國肖像畫 研究, 열화당, p. 229.
- 74) 이강칠 외 (2003). 앞의 책, p. 415.
- 75) 하명은, 이은주 (2007). 앞의 책, p. 175.
- 76) 成海應, 研經齋全集 5, 外集 卷43 儀章類 巾服攷 視事 服, p. 236
- 77) 張弼基 (2004). 朝鮮後期 武班閥族家門 研究. 集文堂, pp. 212-222.
- 78) 이강칠 외 (2003). 앞의 책, p. 479.
- 79) 위의 책, p. 507.
- 80) 위의 책, p. 519.